

광양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필요성 주장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 관리 사무소 설치 범시민 서명운동 시민 1만5000명 이상 적극 동참 '8월 농관원 본원에 서명부 전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요청 서명운동하는 시민들. 광양시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요청하는 서명운동 참여자가 목표 인원 1만 5000명을 넘어섰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서명운동'을 시작해 진행 중이다.

광양시 농업인구인 1만5000명을 목표로 추진한 서명운동은 7월 현재 1만5436명(온라인 2349명, 오프라인 1만3087명)이 참여했다. 서명운동은 광양농협,

동광양농협, 광양시MG새마을금고 등에서 적극 참여했으며 읍면동사무소와 온라인에서도 참여도가 높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광양시 농관원은 1998년 농관원 순천

사무소에 통합됐다. 그리고 농관원 광양 분소가 문을 연 것은 지난 2021년 4월의 일이다. 그러나 민원 업무처리 방식이 이원화돼 있고 광양분소 조직의 규모와 인원이 농관원 순천사무소에 미치지 못해 처리 가능한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불편함을 느낀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울러 현재 전남도내 통합 운영 중인 사무소는 광양을 비롯해 단 3곳 뿐으로 최근 광양시보다 농가 및 농업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 단위(완도, 진도, 장성 등)도 사무소가 분리 설치됐다는 점도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의 타당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회장 이기욱) 외 7개 농업인단체에서는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농관원,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행안부 등에 전달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관내농협, 농관원 순천·광양사무소, 공무원 등이 참여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송명중 농업정책과장은 "7월 말까지 서명운동 서명부를 8월 중 농관원 본원을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라며, "서명운동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온라인 방식과 및 읍면동사무소 또는 관내농협에서도 참여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모두 참여가능하다", "광양에도 농관원 지역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서명운동 참여를 당부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 정책성과 부문 '최우수' 제6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여수시가 '제6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정책성과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공공·민간 기관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보급성과를 겨루는 대회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고 있으며, 오는 8월20일 오후 2시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이 개최된다.

시는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 '여수석유화학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전환' 등 정책성과를 높게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현재 민원 발생 여지가 적고 부지 활용 계획이 없는 공공건축물 옥상 위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올 하반기부터는 '여수시민 햇빛펀드' 방식으로 시민 누구나 가입하여 발생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이 첫 참가이고 공공 태양광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성과를 다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다"며 "올 하반기에 예정된 정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 순천시-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순천시와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가 7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태국 방콕에서 제1회 아시아 습지학교네트워크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학교교육에서의 습지교육' 결의문의 이행을 위해 2023년 9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된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발족식에서 환경부, 4개 시·도 교육청(경남, 인천, 전남, 제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시작됐다. 이후 2023년 11월 9개국 170명이 참석해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워크숍에서 논의의 결과에 따라 7월16일부터 18일까지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창립준비위원회는 10개국 습지 교육 정부 담당자, 학교 관계자, 습지교육 관련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가 참석해 각 국가의 학교교육 과정 내 습지교육을 주제로 사례 발표 세션과 운영규정 검토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태국 크롱피타야 룡콘 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내 습지교육 사례를 견학하고, 학교 학생들과 교류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마을 어르신 대상 자원봉사 활동 대한적십자사 구례봉사회

구례군은 관내 자원봉사 단체인 대한적십자사 구례봉사회(회장 김미경)에서 지난 6월-7월 중 6일 간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2024년 블루재능봉사단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한적십자사 구례봉사회가 응모·선정돼 진행한 자원봉사활동이다.

대한적십자사 구례봉사회는 '자연을 내 곁에 품다'를 주제로 편백 목베개 만들기 와 미니 가든 만들기 체험 활동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

매회 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어르신들의 체질을 도왔으며, 어르신들은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만들기 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치매를 예방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구례=김상현 기자



고흥군이 적조 피해예방 민·관·경 합동 모의훈련을 하는 가운데 공영민 고흥군수(오른쪽 첫번째)가 18일 금산면 우두해역에서 실시된 적조방제 모의훈련에서 감성돔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적조 피해예방 민·관·경 합동 모의훈련 실시

고흥군이 18일 금산면 우두해역에서 민·관·경 합동 2024년 적조방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1㎖당 2000개체 이상 출현해 '적조 경보'가 발령됐다는 상황을 가정해 예찰, 방제 및 가두리 양식 시설 안전해역 이동 조치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 능력 강화로 양식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적조 방제 모의훈련에는 고흥군

과 전라남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여수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방제장비로는 정화선 2척, 어업지도선 2척, 해경 방제선 1척, 무안항공대, 전북양식협회 소속 어선 25척 등 총 32척의 선박, 머드스톤 살포기 1대, 드론 등이 동원됐다.

먼저, 드론 및 기술 지도선을 활용한 적조 예찰 후 황토 및 머드스톤 살포와 어선을 이용한 수류방제를 실시했다. 이어 적

조 피해 발생 전 양식어류 감성돔 치어 5000마리(5cm 이내) 방류 및 양식어류 가두리 시설을 안전 해역으로 이동 조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모의훈련에 직접 참여한 공영민 군수는 "올해도 적조 발생에 대비해 민·관·경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예찰 활동과 방제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글로벌 기후변화와 자연 재난에 그동안 정성 들여 기른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조 피해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순천시, 안전도시 완성을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운영

순천시는 장마철 기상특보 발령 시 전 부서 비상근무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호우, 태풍 등 예비특보 단계부터 산사태 위험지역, 침수 우려지역 등을 사전 예찰하고 주민대피를 안내하는 등 현장 대응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 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상황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무더위 쉼터 715곳, 횡단보도 그늘막 129개소, 공원 안개 분사장치, 도로노면 살수장치, 쿨루프 등

다양한 폭염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노인돌봄서비스와 방문간호 사업 등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오송지차차 침수사고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대응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부서 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한 재난 대응 수습체계를 확립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8만 순천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8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획득한 후, 지난 7월9일 일본 국제안전도시 2개 시(가메오카시, 마츠바라시)가 순천시를 방문하여 안전도시 사업추진 성과와 지역사회 안전도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 오천그린광장&그린아일랜드 2024 국토대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순천시는 대한민국의 국토 공간의 품격을 향상하고 경관관리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제16회 국토대전에서 오천그린광장&그린아일랜드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재해예방 기능을 하는 저류지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한 '오천그린광장' 그리고 제방으로 활용되고 있던 4차선 아스팔트 도로에 전국 최초로 잔디를 식재하여 '그린아일랜드'로 탄생시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핵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국토대전 심사에서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저류지와 제방 상부 4차선 도로를 잔디 광장으로 조성한 혁신 사례로 홍수 등 재해에 더 안전한 도시의 녹지 확충을 잘 보여준 의미 있는 공간이다"며 호평받았다.

시민들에게는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소통하고, 문화를 즐기고, 자연을 탐닉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광장문화를 선사해 주었다.

또한, 중소도시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와 지방위기 시대에 미래도시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원박람회로 높아진 도시경쟁력으로 인해 2월에는 순천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지금은 동천-그린아일랜드-오천그린광장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족 나들이 자연친화 공간, 맨발걷기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순천의 도시 브랜드 위상이 높아지고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